잉크논쟁 공허한“ 입씨름"

콩기름잉크 건조시간 더 길어 … 미국 대두유 입김이 변수

최근 신문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콩기름잉크 논쟁이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콩기름잉크 논쟁은 조선일보가 7월11일자 1면 사고를 통해 『15일자부터 콩기름잉크로 찍어내겠다』고 발표하자 중앙일보도 같은날 『콩기름으로 제작한 그린잉크를 13일자부터 사용하겠다』고 맞받으면서 비롯됐다.
잉크의 주성분은 크게 안료(Pigment), 수지(Resin), 용제(Oil), 경유(Solvent)로 이루어지는데, 매엽용은 용제를 40~50%, 윤전용은 50~6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잉크의 원료 사용 비율

(단위 : %)

구 분	안 료	수 지	용 제	경 유	콩기름
매엽용 잉크	20	10~20	10~20	40~50	-
윤전용 잉크	20	5~10	5~10	50~60	-
콩기름 잉크	20	5~10	5~10		50~60

콩기름잉크는 Solvent를 콩기름으로 대체한 잉크로서 실제 Solvent 전량을 가격이 월등히 비싼 콩기름으로 대체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대체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콩기름잉크가 석유기름을 사용한 잉크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며, 본래 콩기름잉크의 생산동기는 순수한 환경적 차원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 대두유협회가 자국산 콩 수출량 증대를 위한 압력으로 국내 시장화를 자극하고 있으며, 신문사들의 과열경쟁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가 『콩기름잉크로 찍은 신문은 손에 잉크가 묻어나지 않고 더 선명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콩기름은 반건성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에 더 잘 묻어날 수 있고 코팅두께가 얇고 건조과정도 길어 선명도 면에서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콩기름잉크가 과연 잉크성분의 50%가량 차지하는 Solvent부문을 전량 콩기름으로 대체한 것이냐에 대해 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문사간의 콩기름잉크 논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가격면에서 콩기름이 석유기름보다 배이상 높기 때문에 인쇄소재가 신문 판매부수 및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다른 잉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두유협회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하느냐가 시장화의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국내시장의 성장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에폭시 대두유 개발에 성공한 신동방이 국내 시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동방은 에폭시 대두유 개발에 성공해 95년 4800톤(52억원)을 판매한 데 이어 96년 상반기에는 수출 4000톤, 국내공급 7000톤 등 1만1000톤(115억원)을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방은 국내외의 무독성 첨가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PVC바닥재, 가죽, 식품용 랩, 자동차 내장재, 장난감 등의 부문에서 ESO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페인트, 잉크, 접착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제품에도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6/9/9.16>